현대 패션에 표현된 저고리 스타일 연구

이현주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Korean Jacket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Hyun-Joo Lee · Keum-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11년 8월 29일), 수정일(1차 : 2011년 11월 1일, 완료일 : 2011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2011년 12월 31일)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form of the Korean jacket point through relic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hat have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and grace of the Goryeo period as well as the form of the modern Korean jacket starting point. Several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Korean Image of the Korean jacket that can be classified into types expressed in the jacket style of modern fashion. Therefore, we will analyze traditional elements of Korean beauty through the “Korean image” on how to express it in modern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odern design creation and Korean culture. It is important to begin the worl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elements to recognize Korean beauty as well as to utilize historical dress based on function and popularity to continue the effort.

Key words: Korean jacket, Korean image, Korean traditional beauty, Modern fashion, Globalization; 저고리, 한국적 이미지, 한국적 전통미, 현대 패션, 세계화

I. 서 론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응용과 디자인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한 스타일(韓 style) 디자인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전통 미의식에 대한 모색이 조선시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적 전통미의 다양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 전통성과 독자성이 바탕을 이루는 삼국시대부터 현대 한복 형태의 시작점인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복식의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복식 가운데 저고리는 서양 재킷에 해당하는 아이템으로 고대부터 그 디테일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한국적 전통미를 나타냈다. 삼국에서 고려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수직형에서 장방형으로 형태가 바뀌고, 이것을 이루는 세부구조 또한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삼국에서 고려시대 저고리에 나타난 요소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도출하고, 한국적 전통미가 표현된 현대 재킷 디자인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 · 고려시대 유물을 바탕으로 저고리 특징을 살펴보고, 저고리의 ‘한국적 이미지’ 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재킷에 표현된 저고리의 ‘한국적 이미지’ 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한국적 전통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현대 재킷 디자인을 창출한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cks9312@sookmyung.ac.kr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연구범위와 방법은 저고리의 출발점인 삼국시대부터 현대 한복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려시대까지로 한정, 관련 문헌자료와 벽화유물 중심으로 저고리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를 분류하여, 이것이 표현된 2000~2010년 인터넷 사이트(design.co.kr), 패션 잡지(Elle, Vogue, Marie Claire 2010 S/S Collection book)를 중심으로 한국적 전통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유물을 통해 삼국·고려시대 저고리의 특징을 고찰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저고리의 요소를 도출한다.

1. 저고리의 특징

1) 삼국시대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Table 1). 귀족으로 추정되는 묘주부인(Chae, 2006) <Fig. 1>은 직령깃의 적색 무릎 길이 저고리를 입고 있다. 동벽 부벽에 그려진 밥짓는 여인과 디딜방아 찼는 여인<Fig. 2>의 소매는 직선 사선 배래형으로 직령깃과 수구에 현색(顯色)선이 둘러져 있다. 중앙에 자리잡은 두 여인은 귀족 신분(Jeon, 2000)으로 소매와 도련, 직령깃에 주색선과 부색선이 보이며, 부인<Fig. 3>~<Fig. 4>은 직령깃의 좁은 소매 형태이다. 수렴도<Fig. 5>는 둔부선 길이에 좁은 소매로 직령깃과 도련 부분을 현색선으로 장식하고, 무용도<Fig. 6>는 다른 것에 비해 허리대가 뚜렷

Table 1. The jacket of Goguryeo

Section	Goguryeo						Remarks
Remains	Anaksa 3 edition of tumulus		Gakjeochong		Muyongchong		Type of Jikryeonggyoim
Period	4C		The end of 4C		The end of 4C- and the beginnig of 5C		
Fig.	1	2	3	4	5	6	
Wall painting
Technical drawing
Form of collar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Remains	Samsilchong		Ssanngyeongchong		Susanri		
Period	The end of 4C- and the beginnig of 5C		5C		The end of 5C		
Fig.	7	8	9	10	11	12	
Wall painting
Technical drawing
Form of collar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이 보인다. 귀족으로 추정되는 여인<Fig. 7>은 직령깃과 도련에 현색선 장식에 있는데, 여기에 붉은선 장식의 이중선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Fig. 8>은 직령깃, 도련, 수구에 갈색선을 둘렀으며, 소매통이 넓다. 행렬도에서 평민 복장의 여성<Fig. 9>은 둔부선 길이의 소재 저고리에 수구와 직령깃, 도련까지 현색선을 둘렀으며 통수이다. 쌍영총 행렬도 부인<Fig. 10>은 귀족의 옷차림으로 직령깃에 주선과 부선이 있고, 허리대를 착용한다. 여인<Fig. 11>의 저고리는 직령깃으로 둔부선 길이에 현색 허리대를 매고, 귀족으로 추정되는 여인<Fig. 12>은 화려한 색의 직령깃과 소재의 허리대가 보인다.

이와 같이 고구려 저고리는 직령깃을 서로 겹치도록 여민 직령교임으로, 둔부선 길이에 허리에는 대를 두르고, 가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제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의생활(衣生活)을 과

악할 수 있는 유물이나 회화, 벽화, 문헌자료는 많지 않다. 남아 있는 유물 가운데 백제의 상의를 살펴볼 수

Fig. 13. The ancien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From The ancien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1996). <http://buyeo.museum.go.kr/>

Table 2. The jacket of Baekje

Section	Baekje				Remarks
Remains	Dongjasang		The ancien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leitmotif		
Period	6C		6C-7C		
Fig.	14		15	16

Technical drawing					Type of Jikryeonggyoim
Form of collar	Jikryeonggyoim		Jikryeonghapim	Jikryeonghapim	Type of Jikryeonghapim
Remains		The ancien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horse-riding people		Chunsugukmandala-sujang	
Period	6C-7C		6C-7C		
Fig.	17		18	19
	Type of Gokryeonggyoim
Technical drawing
Form of collar	Jikryeonghapim	Jikryeonghapim	Jikryeonghapim	Gokryeonggyoim	

있는 자료로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 동자상(童子像) <Fig. 14>과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 집터 유적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불래산향로 <Fig. 13>가 있다.

동자상 <Fig. 14>의 저고리는 직령교임으로 둔부선 길이이며, 두 손 사이에 보이는 여밈 부근에 대를 맨 것을 볼 수 있다. 거문고를 타는 악사 <Fig. 15>와 배소(排簫)를 부는 악사 <Fig. 16>는 직령합임의 둔부선 길이 저고리를 입고, 허리대를 맨 모습이다. 적(笛)을 부르는 악사 <Fig. 17>와 기마 인물 <Fig. 18>이 직령깃의 합임으로 소매가 넓은 광수인 것에 반해, 기마 수렵 인물 <Fig. 19>은 활 쏘기 편하도록 좁은 형태의 소매이다. <Fig. 20>은 천수국만다라수장으로 백제인의 화려한 복식 모습을 보여주는데, 곡령깃의 합임이며 홍색 허리대가 보인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백제의 저고리는 깃

의 모양과 여밈 방식에 따라 직령합임과 직령교임, 곡령교임으로 나뉜다. 깃 형식에 관계없이 저고리는 모두 둔부선 길이로 허리대를 두르고, 가선이 있는 형태이다.

신라 복식을 연구하기 위한 사료로 토우와 벽화를 살펴볼 수 있다(Table 3). 토우 부부상 남성 <Fig. 21>과 여성 <Fig. 22>은 직령교임의 둔부선 길이 저고리에 허리대를 매고 있다. <Fig. 23>은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 인물상으로 좁은 소매에 직령교임으로 신라의 사신으로 추정되는 <Fig. 25>—<Fig. 26>의 곡령교임과 차이를 보인다. 7세기경 경주 황성동에서 발견된 여인 토우 <Fig. 24>는 넓고 긴 소매의 직령깃 저고리에 허리대를 맨 형태이다. <Fig. 27>은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그려진 귀족 신분의 신라 사신으로 둔부선 길이의 곡령교임으로 현색 허리대를 매었고, <Fig. 28>은 이차돈 순교비로 직령교임이다.

Table 3. The jacket of Silla

Section	Silla				Remarks
Remains	Gyeongju hwangnamdong A statue of a couple		A statue of a rider	A clay doll	
Period	5C-6C		5C-6C	7C	
Fig.	21	22	23	24

Technical drawing					Type of Jikryeonggyoim
Form of collar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Jikryeonggyoim	
Remains	A clay doll		Afrasiab mural	A memorial stone of martyrdom	
Period	7C		7C	8C-9C	
Fig.	25	26	27	28	Type of Gokryeonggyoim

Technical drawing
Form of collar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Jikryeonggyoim	

이와 같이 신라는 가선이 있는 직령교임 또는 곡령교임의 저고리에 허리대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고구려, 백제의 저고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복식을 유추할 수 있는 고려유물로 거창 둔마리 고분벽화, 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와 관경서분변상도(觀經序分變相圖), 해인사와 온양 박물관에 소장된 불복장유물(佛腹藏遺物) 등이 있다(Table 4). 거창둔마리 고분벽화의 여인상<Fig. 29>은 곡령교임으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허리대가 생략된 모습이다. 고려불화 수월관음도<Fig. 30>는 귀부인으로 둔부를 덮지 않는 옆 트임이 있는 짙은 황색의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허리대가 보이지 않는다. 관경서분변상도 귀부인의 공양하는 모습<Fig. 31>~<Fig. 32>은 상당히 넓은 소매의 저고리를 끈으로 곡령깃을 교차하여 여몄다. 요

선철릭(要線帖裏)<Fig. 33>은 곡령교임으로 유(襦)와 상(裳)을 따로 재단하여 봉제하고, 허리에 선을 넣어 장식하였다. 중의(中衣)로 겉옷 안에 입는 장수의(長壽衣)<Fig. 34>와 아미타불 복장유물의 자의(紫衣)<Fig. 35>는 여성의 장유형으로 모두 곡령교임에 동정이 달려있다. 중의<Fig. 36> 또한, 곡령교임인데 앞 뒤 길이 차이가 없어 보이며, 수구가 좁고 자의의 소매보다 긴 것으로 보아 중의 위에 자의를 입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Yu & Kim, 1991).

고려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폭과 길이 비가 1:1의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직령깃이 미세하나마 곡진 형태가 되며 가선이 사라지고, 여밈 수단 또한 끈·고름이나 매듭단추가 된다.

2. 저고리의 ‘한국적 이미지’ 요소

이상의 유물을 통해 삼국·고려시대 저고리의 특징

Table 4. The jacket of Goryeo period

Section	Goryeo				Remarks
Remains	Geoghang dunmali ancient tomb mural	Suwolguanum-do	Guangyoengseobunbyoengsang-do		Type of Gokryeonggyoim
Period	12C-13C	14C	14C		
Fig.	29	30	31	32

Technical drawing
Form of collar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Remains	Bilोजना		Amitabulbokjang		
Period	14C		14C		
Fig.	33	34	35	36

Technical drawing
Form of collar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Gokryeonggyoim	

을 알 수 있다.

저고리를 구성하는 것은 삼국시대 직선의 곧은 직령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려시대에 미세한 곡선형으로 변하고, 여미는 방법으로 교임과 함임의 2가지로 나뉜다. 둔부선 길이의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허리대 대신 끈·고름이나 매듭단추가 나타난다(Table 5).

이와 같이 유물을 통해 저고리를 구성하는 것, 선, 허리대, 끈·고름이나 매듭단추는 저고리의 특징을 표현

한 주요한 것으로 한국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 한국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연구와 선행연구<Table 6>를 바탕으로 것, 섶, 허리대, 끈·고름이 저고리의 ‘한국적 이미지’ 요소임을 도출할 수 있다.

① Yeo(1996)에 따르면 것과 섶의 날카로운 반전의 미, 동정의 포인트 미를 언급하며 우리 옷(저고리)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② Kim(1999)에 따르면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형태

Table 5. A feature of the jacket

Section	Goguryeo	Baekje	Silla	Goryeo
Length	Length of hip line	Length of hip line	Length of hip line	Length of cover over hip line
Form of collar	Type of Jikryeonggyoim	Type of Jjikryeonghapim Jikryeonggyoim Gokryeonggyoim	Type of Jikryeonggyoim Gokryeonggyoim	Type of Gokryeonggyoim
Sleeve	Chaksu, Tongsu	Chaksu, Tongsu	Chaksu, Tongsu	Chaksu, Tongsu
Closing style	Waist strap	Waist strap	Waist strap	Strap · a tied ribbon
Hue	Range · yellow · black color	White · purple color	White color	White · purple · blue color
Style of trimming	Hem	Hem	Hem	Curved hem
Form of the jacket

Table 6. A precedent study of Korean expression image

A study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jacket						
Period		Composition of the jacket				
The Three Kingdoms		Collar	Bodice		Waist strap	Color
Goryeo		Collar	Bodice	Gusset	Strap · Tied ribbon	Color
Thesis	Yeo (1996)	✓		✓		
	Kim (1999)			✓		
	Koh and Chae (1999)	✓		✓	✓	
	Lee (2005)			✓		
	Choi (2005)	✓			✓	
	Chae (2001)	✓				
	Jeong (2007)	✓			✓	

는 전체 실루엣과 저고리의 도련, 쏘 등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응용으로 보고 있다.

③ Koh and Chae(1999)에 따르면 한국적 형태미에 있어 저고리의 경우 곧은 것이 사선의 V자형을 이루며 앞쪽으로 내려와 곡선으로 모아짐으로써 아름다움이 있고, 좌우의 비대칭 균형은 세련되고 변화 있는 한국적 미를 나타내며 특히, 저고리의 깃, 고름, 동정, 쏘, 끝 등의 다양한 선이 무게감을 더해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Lee(2005)에 따르면 쏘은 고대 이래 현대까지의 저고리 발달사를 살펴며, 우리나라만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큰 의미를 지닌 구성요소라고 한다.

⑤ Choi(2005)에 따르면 저고리의 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서양복의 칼라(colla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허리대의 흐름과 조화에서 선조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⑥ Chae(2001)에 따르면 한국적 미의 특성인 곡선과 직선의 자연미 중 곡선의 미학은 한국 가옥의 초가지붕, 도자기 예술, 그리고 고대 저고리의 깃, 도련에서 그 예를 들고 있다.

⑦ Jeong(2007)에 따르면 여성스럽고 우아하며 유연함, 부드러운 성격의 곡선과 딱딱하고 단순한 직선의 변화감과 활동성을 부여하는 깃과 동정의 예술성을 언급하고 있다.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저고리의 ‘한국적 이미지’

1. 깃이 표현된 상의 디자인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고대복식유물을 바탕으로 나타난 깃의 대표적 유형은 직령교임형·직령함임형·곡령교임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이와 유사한 깃의 형태를 분류하고자 새로운 형식의 스타일인 직령교임형 상의 스타일·직령함임형 상의 스

타일·곡령교임형 상의 스타일로 나타냈다(Table 7).

1) 직령교임형 상의 스타일

최연옥의 2002 S/S 컬렉션<Fig. 37>은 엉덩이를 덮는 상의 길이에 직령의 짧은 깃을 접목시켰는데, 이것은 고대복식에서 보여진 밑단까지 이은 곧은 깃의 여미를 현대 디자인에서 짧게 표현한 형태이다. 허리대가 아닌 단추의 사용으로 깃을 강조하며, 일부분만을 여며 활동성을 고려하고 속살을 드러내어 관능미를 연출한다. <Fig. 38>~<Fig. 39>는 이영희의 2007 S/S 컬렉션으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직령깃은 이 컬렉션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된 디자인적 요소로 표현한다. <Fig. 38>은 허리와 팔 부분을 과감하게 노출시켜 저고리 형태를 단순화하되, 블르종(Blouson) 실루엣을 만들어 여유로운 형태감을 주고, 같은 색상의 흰 깃을 직선으로 교차시켜 단아한 멋을 더한다. <Fig. 39>에서는 얇은 실크 소재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부피감이 만들어지고, 깃이 가슴 부분에서 교차됨으로써 신체의 곡선미가 두드러지는 효과를 낸다. 이상봉의 2007 S/S 컬렉션<Fig. 40>은 한글 문양을 활용한 패턴으로 한국 고유성과 미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검정색으로 교차된 직령깃은 서로 다른 한글 서체의 현란함을 중재하면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허리대와 굽기에 차이를 두어 변화와 조화 속에 모던함을 표현한다. Andy & Debb의 2007 S/S 컬렉션<Fig. 41>~<Fig. 42>은 원피스 형태로 검정색 허리대가 장식적 요소이자 실루엣을 고정시키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데, 깃의 표현에 차이를 두어 디자인 변화를 나타낸다. <Fig. 41>은 직령깃의 파임 정도를 깊이한 반면, <Fig. 42>는 깃의 파임을 거의 두지 않는다. 깃 파임의 정도에 따라 전체적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Fig. 42>는 차분함 속에서 단아함이 나타나고, 채골이 드러난 <Fig. 41>은 여성미, 관능미를 나타내어 디자인을 대조적으로 표현한다. 이영희의 2007 F/W 컬렉션<Fig. 43>은 소매가 짧은 포(반수)의 형태와 유사하며

Table 7. A categorization of jacket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Technical drawing	A categorization of jacket style

The Three Kingdoms · Goryeo	Type of Jikryeonggyoim	Type of Jikryeonghapim	Type of Gokryeonggyoim
	↓	↓	↓
Modern	Type of Jikryeonggyoim top style	Type of Jikryeonghapim top style	Type of Gokryeonggyoim top style

Table 8. Type of the Jikryeonggyoim top style

Type	Type of the Jikryeonggyoim top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ig.	37	38	39	40	41

	Choe Yeon Ok 2002 S/S	Lee Yeong Hui 2007 S/S	Lee Yeong Hui 2007 S/S	Lie Sang Bong 2007 S/S	Andy & Debb 2007 S/S
Technical drawing
Fig.	42	43	44	45	46

	Andy & Debb 2007 S/S	Lee Yeong Hui 2007 F/W	Lee Yeong Hui 2010 S/S	Choiboko 2010 S/S	Seol Yun Heong 2010 F/W
Technical drawing

방한을 목적으로 이너웨어(inner wear)를 안에 착용한 모습이다. 가슴 라인 아래 고정된 허리대는 직령깃을 짧게 표현하여 길어진 상의 디자인을 모던하게 표현하고, 깃과 허리대의 동일한 소재 사용으로 통일감을 준다. 이영희의 2010 S/S 컬렉션<Fig. 44>은 소매의 오방색과 깃, 허리대가 서양 복식의 가운을 연상케 하는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 개성 있는 현대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직령깃이 길고 화려한 색의 소매에 비하여 눈에 띄지 않지만, 디자인을 이루는 기본 바탕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Fig. 38>~<Fig. 39>, <Fig. 43>~<Fig. 44>은 모두 이영희 작품으로,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통복식을 기본으로 활용된 직령깃과 허리대, 소매의 조화로부터 한복을 형상화하는 한국적 이미지의 강조가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CHOIBOKO 2010 S/S<Fig. 45>는 현란한 색상과 문양을 사용하여

전통복식에 있어서 현대적 요소의 화려함과 개성을 표현한다. 보라색의 직령깃을 밑단까지 길게 이어 전체적 디자인을 강조하고, 실루엣이 드러나도록 허리대를 착용함으로써 여성미와 관능미를 나타낸다. 설윤희의 2010 F/W 컬렉션<Fig. 46>은 삼국시대 저고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전개형 상의 위에 직령깃과 허리대가 나타난다. 직령깃과 허리대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상의와 같은 톤의 진한 회색의 사용함으로써 화려한 문양에 차분한 느낌과 우아한 이미지를 더한다.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서울컬렉션을 통해 살펴본 직령교임형 상의 스타일은 시대에 따른 일률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을 기점으로 2007년에 이르러 비로소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기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직령깃을 바탕으로 모양과 형태의 활용을 통해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한다. 다양

하고 새로운 소재의 사용과 시도는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저고리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한 직령교임형 깃의 모양과 색의 활용은 전체적인 옷의 분위기를 달리한다. 대략 10년에 걸친 컬렉션의 디자인들은 상의 폭을 좁게 하거나 소매의 길이를 짧게 하는 등 점차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현대 기호에 맞추어 활용·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8).

2) 직령합임형 상의 스타일

Andy & Debb의 2006 S/S 컬렉션<Fig. 47>~<Fig. 48>은 여성의 블라우스와 남성성의 조끼로 어두운 색의 직령깃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Fig. 47>은 전통복식에 사용된 허리대 대신 단추를 이용하여 마주 여미는 직령깃을 강조하고, 상의를 흰색으로 나타내어 깨끗한 이미지를 더한다. 조끼 형태인<Fig. 48>은 보온적 기능을 하는

실용적 디자인으로, 직령깃과 이너웨어를 진한 갈색으로 표현하면서 색의 대비를 통해서 디자인의 미적 요소를 강조한다. 김시양의 2007 S/S 컬렉션<Fig. 49>은 직령깃이 치마의 문양과 동일하게 나타내어 디자인의 통일감을 형성한다. 직령깃과 허리대의 얇고 두꺼움을 색의 대비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이로 인해 느껴지는 비례의 균형감으로 전체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영희의 2007 S/S 컬렉션<Fig. 50>은 실크 소재를 바탕으로 전통복식 저고리의 모습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실크 소재의 직령깃은 두껍게 강조되고, 짧은 상의와 곡선으로 표현된 실루엣이 서양의 볼레로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모던하고 실용성 있는 디자인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Andy & Debb의 2007 S/S 컬렉션<Fig. 51>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에서 직령깃의 개성 있는 표현을 통해 모던함을 나타낸다. 작은 직사각형 천을 규칙적으로

Table 9. Type of the Jikryeonghapim top style

Type	Type of the Jikryeonghapim top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ig.	47	48	49	50	51

	Andy & Debb 2006 S/S	Andy & Debb 2006 S/S	Kim Si Yang 2007 S/S	Lee Yeong Hui 2007 S/S	Andy & Debb 2007 S/S
Technical drawing
Fig.	52	53	54	55	56

	Lee Yeong Hui 2008 S/S	Jeong Hui Jeong 2008 S/S	Bak Eun Gyeong 2008 S/S	Hwang Jae Bok 2008 S/S	Song Ji O 2010 S/S
Technical drawing

덧댄 깊게 파인 직령깃은 단조로운 형태와 색을 피하고, 마주 여민 형태는 다소 긴 상의의 답답해 보이는 요소를 탈피하게 해준다. 이영희의 2008 S/S 컬렉션<Fig. 52>은 직령깃으로 색의 포인트를 준다. 전체적인 형태가 한복의 상의 저고리와 같아보이지만, 합임의 직령깃과 짧은 소매, 허리대의 여밈으로 기존의 전통복식보다 실루엣을 강조하며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한다. 정희정의 2008 S/S 컬렉션<Fig. 53>은 흰색의 긴 상의와 하의로 비교적 단순하고 깨끗한 느낌의 디자인이다. 허리대나 단추를 사용하지 않은 밀폐형 상의에 하나로 여민 직령깃은 디자인에 있어서 장식적 요소로 작용하고, 색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심플하고 현대적 세련미를 느끼게 한다. 박은경의 2008 S/S 컬렉션<Fig. 54>은 어깨 부분을 강조한 몸매를 드러내는 실루엣 속에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둥글게 표현한 짧은 소매와 좁고 길게 여민 직령깃의 부드러운 세련됨은 검정색과 조화를 이루어 현대 디자인의 재킷을 형상화한다. 황재복의 2008 S/S 컬렉션<Fig. 55>은 웨딩드레스의 장식적 요소인 비즈(beads) 등의 액세서리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스타일로 나타낸다. 새틴(satin) 소재의 웨딩드레스에 합임의 직령깃만의 표현으로 디자인을 활용하여, 서양 복식에 동양의 한국적 미가 가미된 모습이다. 송지오 2010 S/S 컬렉션<Fig. 56>은 앞서 설명한 <Fig. 54>와 비슷한 형태의 깃을 나타낸다. <Fig. 54>가 여성성을 강조한 반면, <Fig. 56>은 어깨 품을 넓게 하여 활동성과 남성스러움을 강조한다. 따라서, 짧고 넓은 폭의 소매는 어깨를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며, 깃의 파임 정도와 옷을 고정하여 여민은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령합임은 다른 것에 비해 디자인의 단순함을 드러내는데, 전통복식의 현대적 변형에서 2000년대 초반보다는 후반에 많이 응용되었다. 허리대 대신 단추나 끈의 활용으로 직령깃이 여며지는 형태가 더욱 강조되며, 깃의 파임 정도에 따라 느껴지는 분위기를 달리하여 디자인을 변화시켰다(Table 9).

3) 곡령교임형 상의 스타일

진태옥의 2007 F/W 컬렉션<Fig. 57>의 곡령깃이 중간에 위치하여 여민은 형태로, 깃의 소재를 달리함으로써 디자인의 강조와 변화를 준다. 폭이 넓은 장방형 상의에 가죽 소재의 깃과 2줄로 여민 허리대의 활용은 단순한 디자인에 미적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여성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 이영희의 2007 F/W 컬렉션

<Fig. 58>은 곡령깃에 상의와 같은 색 계열의 양모를 덧댄 작품으로 보온성과 개성을 더해주고, 화려한 문양으로 소매를 강조한다. 짧고 피트(fit)된 원피스형 상의 스타일은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어 여성미와 관능미를 표현하고, 허리대 대신 사용한 단추의 여밈은 곡선의 깃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김종월의 2008 F/W 컬렉션<Fig. 59>은 앞과 뒤 길이에 변화를 둔 레오파드(leopard) 문양의 화려한 디자인이다. 강조된 다소 두꺼운 곡령깃이 진한 갈색으로 나타내어 화려한 상의를 안정감 있게 표현하고, 기존의 일자형의 형태가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디자이너의 개성이 드러난다. <Fig. 60>~<Fig. 62>는 모두 이영희 작품으로 곡령교임형 상의 스타일을 나타낸다. <Fig. 60>은 2008 S/S에서 직접 자신의 옷을 입어 컬렉션에 선보인 것으로, 진한 갈색 상의에 흰 곡령깃을 강조한 조끼 형식의 디자인이다. 흰색으로 사용된 기하학적인 화려한 문양과 곡령깃, 이너웨어는 화려한 디자인에서 통일감을 느끼게 하며, 곡령깃이 서양의 조끼와 구별되어 한국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2009 S/S의 원피스 형태인 <Fig. 61>은 허리대의 색을 달리하여 강조한 것이다. 넓고 둥근 7부 소매는 삼국시대 상의 디자인에 현대적 이미지가 가미되어 세련미와 부드러운 곡선미를 나타내며, 서양가운과 비슷한 형태는 곡선의 깃과 구별되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2010 S/S<Fig. 62>에서 소매의 과감한 생략과 청록색의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는 전통복식에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난 현대의 미적 감각을 더한 표현이다. 2007 F/W<Fig. 58>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곡령깃이 여며지는 방향과 계절적 시기를 달리하여 변화를 준 것이다.

곡령교임은 곡선으로 구부러진 깃을 좌 또는 우로 교차하여 여민은 방법으로 전통복식 중 한복 저고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요소이다. 2000년 후반에 주로 나타난 이러한 표현은 현대 디자인에 혼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국적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미지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곡령교임형 상의 스타일은 이영희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곡령깃을 기본으로 상의의 색을 화려하게 변화시키거나 여밈의 방향을 달리하여 전통복식이 가지는 본질적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다(Table 10).

2. 쏘이 표현된 상의 디자인

쏘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앞길에 덧대어 겹치는 부

Table 10. Type of the Gokryeonggyoim top style

Type	Type of the Gokryeonggyoim top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ig.	57	58	59	60	61	62

	Jin Tae Ok 2007 F/W	Lee Yeong Hui 2007 F/W	Kim Jong Wol 2008 F/W	Lee Yeong Hui 2008 S/S	Lee Yeong Hui 2009 S/S	Lee Yeong Hui 2010 S/S
Technical drawing

Fig. 63. Seop.

분이다. 즉, <Fig. 6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저고리의 파란색 부분으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 고려시대 복식유물에서 볼 수 있다. 저고리의 넓은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이지만 현대 패션에서는 주로 생략되거나 한 장으로 앞길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3. 허리대가 표현된 상의 디자인

삼국시대에 옷을 여미는 허리대의 역할은 고려시대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끈이나 고름으로 바뀌었는데, 현대 패션에서 허리대를 활용한 디자인은 삼국시대의 특징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주요 요소로, 시간이 지나 고려시대 등장한 끈·고름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영희의 2006 S/S 컬렉션<Fig. 64>~<Fig. 65>은 허리대의 여미는 기능적 요소보다 디자인의 미적 요소를 강화시킨 것이다. <Fig. 64>는 검정 새틴 소재의 원숄더(one shoulder) 상의로 소재의 선택과 형태의 표현에 있어서 디자인의 개성을 드러낸다. 허리대는 상의와 동일한 검정색 허리대는 여미는 기능적 역할을 하며 실루엣을 강조하지만, 골반에 여민 허리대는 검정과 대비되는

빨간색을 선택하여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피해 배색에서 오는 정열과 활기를 표현한다. <Fig. 65>는 <Fig. 64>와 같은 원숄더 상의로 길이와 색에 있어서 변화를 준다. 동일한 색으로 표현된 깃과 허리대는 흰색 원피스에 포인트를 주어 강조하고, 가슴 바로 아래에 허리대를 여밈으로써 하체를 더욱 길게 보이는 역할을 한다. 배영진의 2007 디자인<Fig. 66>은 가슴 부분이 V자로 깊게 파인 검정색 미니 드레스로 허리대를 이용하여 색의 대비를 강조한다. 서양의 원피스 형태를 장식한 빨간색의 허리대는 검정색의 단순한 디자인에 장식적 요소로 작용하고, 여민 허리대의 끈을 길게 늘어뜨려 서양과 동양의 미적 조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 한영미의 2008 디자인<Fig. 67>은 허리대가 변형된 형태로 여러 색의 가는 선을 엮어 여민다. 오방색의 요소인 청(靑), 백(白), 적(赤)의 가는 선을 엮음으로써 색채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가슴과 허리 사이에 위치하면서 더욱 세련된 현대 디자인으로 나타낸다. 이혜순의 2010 디자인<Fig. 68>은 상의 길이가 긴 포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허리대를 반복하여 묶은 것이다. 여러 번 묶은 허리대는 허리를 강조하고, 상의와 동일한 색의 선택에 있어서 형태상 단조로움을 피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박경숙의 2010 디자인<Fig. 69>은 드레스를 허리대로 강조한 디자인이다. 허리대를 사용됨으로써 넓어지는 치마 폭의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하며, 노란색의 선택으로 디자인의 변화를 준다.

현대 디자인에서 허리대는 전통복식에서 보인 여미는 기능적 요소보다 미를 강조하는 요소가 더 많이 드러난다. 대부분 2000년 후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데,

Table 11. Application of the waist strap

Type	Application of the waist strap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ig.	64	65	66	67	68	69

	Lee Yeong Hui 2006 S/S	Lee Yeong Hui 2006 S/S	Bae Yeong Jin 2007	Han Yeong Mi 2008	Lee Hyae Sun 2010	Bak Gyeong Suk 2010

Table 12. Application of the strap tied ribbon

Type	Application of the strap tied ribbon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ig.	70	71	72	73	74	75

	Lee Yeong Hui 2007	Hang Seong Uk 2008	Han Yeong Mi 2009	Lee Jong Sun 2009	Lee Yeong Hui 2010	Lee Yeong Hui 2010

허리대를 이용한 색의 대비나 형태의 변형을 통한 강조, 허리가 아닌 가슴과 골반선에 위치하여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나타낸다(Table 11).

4. 끈·고름이 표현된 상의 디자인

이영희의 2007 디자인<Fig. 70>은 중앙에서 끈으로 여밈는 합입 상의 형태이다. 한복과 유사하며, 전통복식 상의 저고리를 변형한 스타일로 직령합입을 끈으로 여밈으로써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실용 한복으로 보인다. 홍성욱의 2008 디자인<Fig. 71>은 과감히 드러낸 팔에 다양한 색의 끈을 이용하여 목 뒤로 묶어 홀터넥(halter neck) 원피스로 나타낸다. 목에 연결된 끈은 상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화려한 색을 이용하여 단순한 디자인의 변화를 꾀한다. 한영미의 2009 디자인<Fig. 72>은 <Fig. 70>과 유사한 스타일로 상의 길이와 여밈의 형태에서 차이를 둔다. 가슴까지 오는 상의 길이에 곡령깃을 여민 끈은 형태와 기능의 간소화로 모던한 한복을 표현한다. 이종순의 2009 디자인<Fig. 73>은 전통복식의 긴 고름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기능

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이다. 소매가 없는 선염 붉은 상의에 밑단을 주름지게 변형하여 여성미를 표현하고, 고름을 달아 디자인의 미적 요소를 강화한다. 이영희의 2010 디자인<Fig. 74>은 상의 깃을 길게 하여 묶어 고정하는 형태로 전통복식과 매우 다른 스타일이다. 길고 넓은 폭의 깃은 한복 저고리와 다르게 표현되어 한국적 이미지가 창의적이며 드러내고, 실크 소재의 사용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같은 시기의 이영희 디자인<Fig. 75>은 상의와 하의에 동일한 색을 배치하고, 허리 옆선에 고름을 달아 넓어보이는 상의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변화시킨다.

2000년 후반에 나타난 끈·고름의 표현은 다양한 색의 선택과 형태의 변형에 있어서 다소 파격적 디자인을 나타낸다. 대부분 위에서 살펴본 허리대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요소보다는 미적 요소를 강조하며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한다(Table 12).

IV. 결 론

이상을 토대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시대 저고리의 깃이 곧은 직령이라면, 고려시대의 깃은 곡선형의 곡령으로 여밈 폭이 깊은 중거형이다. 둔부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짧아져 둔부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삼국시대 여밈 수단이었던 허리대는 끈·고름으로 변화하고, 목둘레를 지나 앞길 도련으로 이어지던 가선이 가슴 선에서 끊어져 옷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저고리에서 보여지는 ‘한국적 이미지’ 요소를 저고리의 깃, 섹, 허리대, 끈·고름으로 도출·분류할 수 있다.

둘째, 저고리의 ‘한국적 이미지’ 요소가 현대 패션의 상의 디자인에 표현된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깃이 표현된 상의 디자인은 직령교임형 상의 스타일·직령합임형 상의 스타일·곡령교임형 상의 스타일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령교임형 상의 스타일은 2002년을 기점으로 2007년에 이르러 비로소 활발히 나타나는데, 서양의 재킷과 달리 전통복식에 나타난 직령깃의 형태와 색이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변형되었다. 전반적으로 컬렉션에 표현된 직령깃은 상의의 화려한 문양이나 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허리대나 끈으로 엮인 교차여밈은 대략 10년에 걸쳐 기능적인 요소와 미적인 요소가 강조되며 변화하는 현대 기호에 따라 활용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령합임형 상의 스타일은 디자인에 있어 직령깃이 단순하게 표현되었으며, 전통복식의 현대적 변형에서 2000년대 초반보다는 후반에 많이 응용되었다. 직령깃은 허리대 대신 사용된 단추나 끈으로 여밈의 형태를 강조하고, 파임 정도를 달리하여 상의와 동일한 색의 사용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변화시켰다. 곡령교임형 상의 스타일은 2000년대 후반에 주로 나타났으며, 고려시대 저고리 구조의 원형을 살린 디자인으로 전통복식인 한복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주로 이영희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곡령깃을 기본으로 상의의 색을 화려하게 변화시키거나 여밈의 방향을 달리하여 전통복식이 가지는 본질적 모습을 ‘한국적 이미지’에 맞추어 가장 잘 표현하였다.

2. 섹이 표현된 상의 디자인은 저고리의 앞길에 덧대어 겹치는 부분인 섹을 활용한 것으로, 현대 디자인에서 주로 생략되거나 한 장으로 앞길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섹의 기능이 약화되어 미적 요소가 강조된 현대 디자인에서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허리대가 표현된 상의 디자인은 2000년 후반에 많이 나타나며, 현대 디자인에서 전통복식의 여밈은 기능적 요소보다 미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허리대를 활용한 디자인은 삼국시대의 특징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주요 요소로, 색의 대비나 형태의 변형을 통한 강조, 허리가 아닌 가슴과 골반선에 위치하여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4. 끈·고름이 표현된 상의 디자인은 끈·고름을 표현함에 있어 다양한 색의 선택과 형태의 변형으로 다소 과격적 디자인을 나타냈다. 대부분 위에서 살펴본 허리대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요소보다는 미적 요소를 강조하며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삼국·고려시대 저고리의 특징을 알아보고, ‘한국적 이미지’가 표현된 요소를 2000~2010년 국내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분류할 수 있었다.

삼국·고려시대의 직선의 곧은 깃과 허리대의 착용이 상의 길이가 짧고, 깃이 둥글게 변화한 조선시대와 대조를 이루며 현대 패션에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으로 허리대와 깃의 활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 디자인에 서양적 요소를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이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세계에 진출한 이영희와 이상봉 등 많은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보여진 전통요소의 표현과 활용은 우리의 전통을 알리며 한국미를 새롭게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디자이너의 활동과 함께 현대 패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성과 기능성 즉, 편안함·따뜻함 등을 고려한 전통복식요소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 디자인의 창작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에게 지나간 패션이 아닌 현대 패션에서 전통이 묻어나는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대중성을 지니며 더 나아가 세계화의 발판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Chae, K. S. (2001). The study of costumes on Goguryeo murals in the Gakjoe-tomb and the Susanri-tomb.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4(3), 65-74.
- Chae, K. S. (2006). *Korean Jeogori 2000 year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ess.
- Choi, J. S. (2005). *A study on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Joseon period collar applying to the modern costume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Seoul.
- Jeon, H. T.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The study of the ancient tomb mural paintings of Goguryeo]. Seoul: Sagae-jeol Press.
- Jeong, E. S. (2007). *A study on the image of traditional costume in the Contemporary fashion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u National University, Sangju.
- Kim, J. Y. (1999). *A study on dress and its ornaments design using folk paint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h, J. M., & Chae, K. S. (1999). A first study of designing practical Korean costum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nd tast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5), 654–666.
- Lee, E. J. (2005). *The transitional process of "SEOP" outer collar of Korean jack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The ancien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1996). *Buyeo National Museum*. Retrieved November 25, 2009, from <http://buyeo.museum.go.kr/>
- Yeo, S. M. (1996). *A study on the Korean clothes design factors used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 Yu, H. G., & Kim, M. J. (1991). *Korean clothes history*. Onyang: The Onyang Folklore Museum.